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유행병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곳에다 우리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익숙하게 여겼던 모든 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혼란스럽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일부 해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느슨해지고 무뎌져 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지난 6 월 한 달에만 남아공 농장에서 주로 백인들을 중심으로 30 명이 넘는 농부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긴급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 그리고 여성에 가해지는 젠더 기반 폭력(GBV) 대응도 시위의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1994 년 넬슨 만델라가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된 이후 흑인 중심 정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4 반세기 넘게 집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살인 강도, 각종 절도와 도난사건, 그리고 부정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생계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일으키는 데모 등...



남아공에서 구리선을 몰래 팔기 위한 전선 절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의 수업이 중단 되는 등, 그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컨트롤 되는데 며칠씩 정전이 되니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위반시 벌금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씩 감염자가 증가하지만 현지인들의 무감각, 부주의 등,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보다 안한 사람이 더 많고 혹시 착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천으로 된 마스크만을 착용함으로 방역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 들어야 할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며 기다려야 될까? 그래도 예배는 비대면이라는 최후의 방법이 있지만 대면을 통하여 문제를 풀고 해결 해야 하는 선교는 어떻게 해야할까? 등등...

선교는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중요한 것은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선교의 Renovation 을 위한 자숙과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대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의 민낯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난 날 우리가 선교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미래를 위해 꿈을 꾸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야 말로 선교의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직접 찾아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때 간접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최선책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일



그렇지 않아도 항상 춥고 배고픈 현실인데 COVID-19 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지역간 통행금지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했던 Hazy View 성도 교회를 찾아가 우선 급하게 필요한 쌀을 보급하였습니다. Moloto 산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중고 옷을 나누었으며 Sosangube 산 소망교회의 아이들에게 구제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Seed of Life 교회의 성전공사



생각보다 어렵고 더디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행병으로 인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자재비 상승과 부족 현상으로 배달이 중단되는 등, 하루 하루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조금씩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지붕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이젠 바닥과 강단의 타일을 붙이고 페인트 공사를 마지막으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2020 년 10 월

희망의 땅 아프리카에서 김창길/박성자 선교사드림